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 다하길

한준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



“
원자력 가족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사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존 경하는 원자력계 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
습니다. 대망의 2007년 새해를 맞이
하여 원자력계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원자력계가 그 어느 때 보
다도 뜻 깊은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4월 28일 신월성 1,2호기 기공식을 시
작으로, 6월 16일 신고리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하여, 신고리 2호기와 신고리 3,4
호기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발표된 ‘제3차 전력수
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를 추가 건설하여, 2006년 말 설비 용량 기
준 27%였던 원자력 점유율이 29%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7개국이 참여하
는 꿈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사업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 개발 사업도
공동이행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핵융합 기술 개
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원자력 기술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도 노력하여 원자력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의료용 동위원소의 대량 생산, 원자력 나노 소재 개발 및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및 섬유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개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올라간 고유가 시대에서 현실적으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라는 인식이 구미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IAEA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06」 보고서는 2030년에 세계 에너지 수요가 53%, 온실 가스 배출량이 55% 정도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친애하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 빈국임에도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이고 사용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원자력 산업계는 에너지 안보의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자력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르네상스는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자력 안전문화 속에서 선진화된 원전 운영 및 철저한 예방 정비로 안전성을 높이고 원자력발전소 운전 현황 및 시설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 가족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자원 및 에너지, 경제 성장 그리고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달려있고 그 핵심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력은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원자력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가족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사업을 훌륭하게 발전시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앞에 놓인 난제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원자력계가 더욱 크게 발전하길 바라며, 원자력 가족 여러분에게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